

李白의 <閑適>詩 譯解*

김정희**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李白의 <閑適>詩 譯解
 - 2.1 月下獨酌四首其一(長安)
 - 2.2 冬夜醉宿龍門覺起言志(洛陽)
 - 2.3 友人會宿
 - 2.4 山中與幽人對酌
 - 2.5 春日醉起言志
 - 2.6 獨坐敬亭山(宣城)
3.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李白(701-762) 문집의 최초 간행본으로 간주되는 ‘宋蜀本’ 《李太白文集》의 분류에 따르면, 이백의 閑適詩는 1,100여 편의 작품 중 총 31題 36수가 제21권 <歌詩47수> 전반부에 실려 있다.¹⁾

‘閑適’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한적은 ‘한적하다’의 어근으로 ‘한가하여 自適함’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현재 ‘閑’과 ‘閒’ 두 글자는 통용되고 있으나, 許慎

* 이 논문은 한양여자대학교 2018년도 제2기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본 주석형 논문은 ‘韓國李白詩文研究會’의 발표와 토론을 거친 후 저자가 최종 책임 교열한 것이다. 詹鏞이 主編한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를 지본으로 삼았다.

** 한양여자대학교 실무중국어과 교수(jhk0503@hywomian.ac.kr)

1) 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全8冊),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의 《說文解字》에서는 다르게 풀이하였다. ‘閒’자에 대해 “‘한’은 틈을 뜻한다. 門과 月로 구성되어 있다(閒, 隙也, 從門從月)”고 하고, 같은 페이지의 몇 글자 뒤에 ‘閑’자에 대해서는 “‘한’은 우리를 뜻한다. 門과 가운데에 ‘木’자로 구성되어 있다(閑也, 從門, 中有木)”고 했다.²⁾ 이와 같이 ‘閑’자는 울타리, 마구간의 의미에서 막다는 뜻으로 파생되어 사용되었으며, 한가하다는 뜻으로도 차용되었다. 이후 점차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閑’과 ‘閒’ 두 글자가 통용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적하다 중 ‘適’은 ‘가다, 여자가 시집가다’는 뜻으로, 《說文解字》에 “적은 가다는 뜻이다(適, 之也)”고 했다.³⁾ 그러나 통상적으로 ‘적’은 적합하다, 적당하다, 알맞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신체적 생리적으로는 편안하다 뜻으로 쓰인다.

한가하고 편안한 상태의 심경을 노래한 이러한 한적시는 陶淵明(365~427)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는 벼슬길에서 물러나 고향에서의 전원 생활을 기교 없이 평담한 시풍으로 노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⁴⁾ 그러나 이백의 삶은 陶淵明과는 달랐다.

이백은 長安 원년(701) 則天武后가 통치하던 시기에 서역에서 태어나 綿州(지금의 四川省)에서 생활하다가 25세쯤 큰 뜻을 품고 촉 지방을 떠나 16동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宦途로 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42세가 되던 天寶 원년(742)에야 장안에 들어가 현종의 궁중에서 翰林供奉으로 지내다가 천보 3년(744)에 궁중에서 추방되었다.

이백은 다시 중국의 여러 지역을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방랑을 하며 지내던 중에 천보 14년(755)에 안사의 난이 발발하자, 肅宗이 이미 즉위했지만, 현종의 16번째 아들인 永王 李璣의 군대에 참모로 참여했다. 이로 인해 尋陽(지금의 湖北省)의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夜郎(지금의 貴州省)으로 유배되던

2) 許慎撰,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12篇上, p.589.

3) 許慎撰,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2篇下, p.71.

4) 이백 사망 후에 태어나 한적시의 시학 이론을 확립한 白居易(772-846)는 관직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홀로 머무는 상태의 정신적 기쁨과 심리적 만족감을 노래한 시를 한적시로 분류했다.

중에 肅宗 乾元 원년(758)에 무죄로 방면되었다. 이백은 바로 장강을 따라 내려와 다시 강남 여러 지방을 방랑하다가 代宗 寶應 원년(762) 當塗(지금의 安徽省)에서 62세로 생을 마감했다.

자유분방했던 이백은 사실은 이와 같이 짧은 궁정생활 외에는 정치적으로 재능을 발휘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 청년기에는 각지의 산천을 유람하며 유랑 생활을 했고, 문벌귀족들의 모함으로 궁정에서 추방된 이후에는 다시 긴 방랑 생활을 했다. 게다가 유배되던 중에 사면을 받고 다시 여러 지역을 방랑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백이 어떻게 한가하고 평담한 한적시를 노래했는지 6수의 譯解를 통해 이백의 한적시를 감상해보고자 한다.

2. 李白的 '閑適' 詩 譯解

2.1 月下獨酌四首 其一(長安)

달 아래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 4수 중 첫째(장안에서)

花間一壺酒,	꽃 속에 술 한동이 놓고
獨酌無相親.	친한 이 없이 독작하네.
舉盃邀明月,	잔 들어 밝은 달 부르고
對影成三人. ⁵⁾	그림자 마주하니 세 사람 되었네.
月既不解飲,	달은 술 마실 줄 모르고
影徒隨我身.	그림자는 그저 나만 따라 할 뿐이네.
暫伴月將影, ⁶⁾	잠시 달과 그림자와 어울려

5) '舉盃 ~ 成三人' 2구: 송대의 吳玘은 《優古堂詩話》에서 "이 두 구와 본 권의 제16수인 <독작>의 '독작하다' 외로운 그림자에게 권하네(獨酌勸孤影)" 구는 도연명의 "말하고 싶지만 나와 대화할 이 없어, 잔 들어 외로운 그림자에게 술 권하노라(欲言無余和, 揮杯勸孤影)" 구를 취한 것"이라 했다.

6) 將: 함께.

行樂須及春.⁷⁾ 이 봄을 즐기리라.
 我歌月徘徊, 내가 노래하니 달은 맴돌고
 我舞影凌亂. 내가 춤추니 그림자 어지러이 움직인다.
 醒時同交歡, 깨었을 때는 함께 즐거움 나누지만
 醉後各分散. 취한 뒤에는 각기 흩어지네.
 永結無情遊,⁸⁾ 영원토록 저들과 세속을 초월한 교유 맺어
 相期邈雲漢.⁹⁾ 아득한 은하에서 만나길 기약하자꾸나.

상석

봄날 달빛 아래 꽃 속에서 술 한 단지를 놓고 함께 할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외롭게 술을 마신다. 이에 술잔을 들어 밝은 달을 부르고, 밝은 달빛에 생긴 내 그림자를 마주하니, 나와 달과 그림자 셋이 되었다. 달은 전혀 술을 마실 줄 모르고, 그림자 또한 그저 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달과 그림자로라도 짝을 삼아 이 봄날의 즐거움을 만끽하고자 한다. 내가 노래하니 달은 하늘에서 내 주위를 맴돌며 배회하고, 내가 춤을 추니 내 그림자는 나의 춤 동작을 따라 뛰어오르기도 하고 구르기도 한다. 술에 깨어 있을 때는 나와 달과 그림자가 좋은 벗이 되어 즐거움을 함께 나누지만, 취한 뒤에는 각자 흩어진다. 저들과 헤어지기 아쉬워서 영원토록 세속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변함없는 교유를 맺어 저 아득한 은하에서 함께 노닐기를 기약하고 싶다.

-
- 7) 行樂須及春: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여 즐겨야 한다. 《古詩十九首》에서는 “어찌 촛불 들고 놀지 않으리, 즐거움도 마땅히 제 때에 누려야 하리(何不秉燭遊, 爲樂當及時)”라고 했다.
- 8) 無情遊: 지각도 없고 감정도 없는 달과 그림자와의 교유. 세속 인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교유. ‘무정’은 ‘忘情’과 같은 의미로, 인간의 희로애락을 초월한 교유를 의미한다. 《장자·덕충부》에 “내가 말하는 무정이란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인하여 안으로는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고, 항상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여 특별하게 양생하지 않는 것이다(吾所謂無情者, 言人之不以好惡內傷其身, 常因自然而不益生也)”라고 했다.
- 9) 雲漢: 은하수. 먼 하늘의 선경. 세속을 떠난 天界.

교기

全唐詩本 등 몇몇 판본에는 제목아래 ‘長安’2자의 주가 없다. 文苑英華本은 2수만을 수록하고, <對酒>라 제목하고, 제1수 제목아래에는 <月下獨酌>, 제2수 제목아래에는 <月夜獨酌>이라는 주가 있다. 敦煌本은 제1수와 제2수를 합하여 1수로 수록하고, <月下對影獨酌(달 아래서 그림자를 벗하여 혼자 술마시다)>라고 했고, 제3수와 제4수가 없다. 이와 같이 각 판본마다 동일한 것이 없으나 위작이 아닌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제1구의 間이 下 또는 前으로, 제3구의 擧가 擘으로, 제8구의 行이 爲로, 제9구의 歌가 飲으로, 제10구의 凌이 零으로, 12구의 後가 時로 된 판본도 있다. 제14구의 邈雲漢이 碧嶺畔 혹은 碧巖畔으로 된 판본도 있다.

해제

이백이 홀로 술을 마시며 느낀 감회를 지은 시다. 4수의 연작시 중 첫째인이 시는 현종의 부름을 받고 장안에서 翰林供奉으로 관직생활을 하던 天寶 3년(744)봄에 지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아름다운 봄밤에 술을 마시며 그 즐거움을 표현한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외로움이 가득하다. 제목 속의 ‘고독(獨)’이 시 전반에 걸쳐 이백의 심경을 반영한다.

제1구와 제2구에서 ‘술 한동이’와 ‘독작’으로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한 이 없이’로 ‘고독’을 강조했다. 술잔을 들어 달을 부르고 그림자를 마주하여 고독을 벗어나려 하지만, 감정 없는 경물을 벗으로 삼아야 하는 현실에 고독감만 더해진다. 하지만 달과 그림자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물아일체의 경지가 되면서 ‘세속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교류’를 통해 아름다운 봄날 달밤의 고독을 배가시키는 예술적 효과를 거두었다.

이 시에 대해 건륭시기의 《唐宋詩醇》에 “천고의 기묘한 정취는 눈앞에서 얻은 것이다(千古奇趣, 從眼前得之)”고 하여, 추리나 연상에 의해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눈앞에 현존하는 경물을 직접 마주하며 솟아나는 시적 감흥과 형상

을 즉각적으로 묘사한 것을 칭송했다.

2.2 冬夜醉宿龍門覺起言志¹⁰⁾(洛陽)

겨울밤 용문에서 술 취해 자다 깨어 일어나 뜻을 말하다(낙양에서)

醉來脫寶劍, 술 취해 보검 풀어놓고
 旅愁高堂眠.¹¹⁾ 나그네길 화려한 집에서 쉬다 잠들었네.
 中夜忽驚覺, 한밤중 홀연히 놀라 깨어
 起立明燈前. 일어나 밝은 등불 앞에 섰네.
 開軒聊直望,¹²⁾ 창 열고 무심히 앞을 바라보니
 曉雪河冰壯. 새벽에 언 강물 위로 내리는 눈 장관이구나.
 哀哀歌苦寒,¹³⁾ 애달피 <고한행>을 노래 부르니
 鬱鬱獨惆悵. 울적하여 홀로 서글프네.
 傅說板築臣,¹⁴⁾ 부열은 널판으로 담장 쌓던 신하였고
 李斯鷹犬人.¹⁵⁾ 이사는 매와 사냥개 같이 부러지던 사람이었지.

10) 龍門: 윈 지명은 關塞山 혹은 伊闕山이다. 허난성 洛陽市 서남쪽 30리에 있다. 두 산이 마주 대하고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망루(關)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고, 그 사이로 伊水 강이 흐르므로 龍門이라 불렀다.

11) 高堂: 화려한 집. 권세가의 집.

12) 聊: 우선, 잠시. 되는데로, 그러저럭.

13) 苦寒: 고악부 중에 부역하러 가다가 추위를 만난 고통을 노래한 <苦寒行>이 있고, 曹操도 太行山으로 북상할 때 눈과 바람을 견디며 먼 길을 가야 했던 고통을 노래한 <苦寒行>을 지었다.

14) 傅說板築臣: 부열은 은나라의 현명한 재상. 《尙書·說命》에 “왕이 이 때문에 글을 지어 알리기를 내가 사방을 다스리므로 나는 덕이 선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였다. 이 때문에 말하지 않고 공손히 묵언하며 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꿈에 하느님이 나에게 훌륭한 보좌할 사람을 주셨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말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그 형상을 자세히 살펴서 천하에서 그 같은 모습의 사람을 두루 찾게 하였다. 부열이 부암의 들판에서 흙을 쌓고 있었는데 모습이 꼭 같았다. 이에 그를 세위 재상으로 삼았다(王肅作書以誥曰, ‘以台正於四方, 台恐德不類, 茲故弗言, 恭默思道, 夢帝賚予良弼. 其代予言.’ 乃審厥象, 俾以形旁求於天下. 說築傅巖之野, 惟肖, 爰立作相)”라는 글이 있다. 또한 《한시외전》에도 “부열은 흙을 지고 판대기로 담장을 쌓았는데 대부가 되었다(傅說負土而板築, 以爲大夫)”라는 글이 있다.

颶起匡社稷,	바람처럼 일어나 사직을 보좌하였으니
寧復長艱辛.	어찌 또 오래도록 곤궁하였겠는가?
而我胡爲者,	그런데 나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歎息龍門下.	용문산 밑에서 탄식만 하고 있구나.
富貴未可期,	부귀는 기약조차 할 수 없고
殷憂向誰寫.	깊은 근심은 누가 있어 털어놓나?
去去淚滿襟,	걸고 걸으면 눈물이 옷깃을 적시니
舉聲梁甫吟. ¹⁶⁾	소리 높여 <양보음>을 부르네.
靑雲當自致,	청운의 꿈 응당 스스로 이루는 것
何必求知音.	어찌 꼭 날 알아주는 자를 찾아야 하리?

상석

오랜만에 대취하여 늘 차고 다니던 보검을 풀어놓고 나그네길 잠시 쉴 겸 화려한 집에서 잠을 잤다. 그러나 한밤중 놀라 깨어 불을 밝게 켜고 일어섰다. 창문을 열고 생각 없이 밖을 응시 하노라니 굳게 얼은 강물 위로 세차게 날리는 새벽 눈발이 장관을 이룬다. 슬프디 슬픈 마음으로 고통과 추위를 호소한 <고한행>을 부르니 가슴이 미어져 홀로 서럽다. 부열은 판자로 담을 쌓는 천한 신하였고 이사는 매와 개처럼 부림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순식간에 자신을 일으켜 사직을 바로 잡았으니 어찌 다시 고생과 곤경에 오랫동안 처했겠는가? 그런데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용문산 아래에서 탄식만 할 뿐이다. 부귀를 기약할 수 있기는커녕 내 마음속의 큰 근심을 털어놓을 사람조차 없구나. 걸고 걸으면 눈물이 흘러 옷깃을 흠뻑 적실 정도이니, 그저 소리 높여 나의 충정과는 달리 나를 참조하는 무리들을 원망하는 <양보음>

15) 鷹夫人: 사냥매나 사냥개처럼 남의 부림을 받아 분주히 다니며 힘쓰는 사람.

16) 梁甫吟: 梁父吟이라고도 하며, 악부시의 옛 제목이다. 《樂府詩集》의 <相和歌辭·楚調曲>에 실려 있다. 諸葛亮이 지었다는 설도 있고, 제갈량이 은거할 때 이 노래를 자주 불렀다는 설도 있다. 그 내용은 자신이 군주가 턱을 지니도록 보필하기를 원하나 소인배의 참언으로 길이 막혔다는 것이다. 양보는 泰山 아래에 있는 작은 산이다. 이백 또한 이 제목의 악부시를 지은 바 있다.

을 부를 뿐이다. 그러나 청운의 이상은 마땅히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 어찌 나를 알아주는 자들을 찾아 그들의 도움과 추천을 얻을 필요가 있겠는가?

교기

全唐詩本 등 몇몇 판본에는 제목아래 ‘洛陽’ 2자가 없다.

해제

겨울밤 용문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밤에 깨어나 생각한 바를 적은 시다. 창작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詹鏞은 조정을 떠나 힘겹게 생활하던 天寶 9년(750)에 지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安旗는 開元 19년(731) 겨울 낙양에서, 郁賢皓는 開元 21년(733) 겨울 낙양 부근 용문에서 청년 시절 이백이 장안과 낙양을 오가며 입조의 가능성을 모색하던 개원 연간에 지은 것으로 보았다.

이 시는 4구마다 ‘前’, ‘悵’, ‘辛’, ‘寫’, ‘音’ 등으로 5번 환운했는데, 그에 따라 내용도 5단락으로 나뉜다. 첫 단락은 여행 중 술을 마시고 자다가 한밤중에 놀라서 깬을 말하였고, 둘째 단락에서는 그 순간에 작자가 느낀 고통과 슬픔을 말하였다. 셋째 단락에서는 부열과 이사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고생을 겪었으나 중국에는 공을 세우고 부귀영화를 누렸음을 말하였고, 넷째 단락에서는 그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현재 상황을 비탄하였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자신의 전도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음을 암시했다. 부귀는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인생길을 홀로 서글퍼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청년기보다는 만년에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하다.

嚴羽는 “李斯鷹夫人” 구는 “이사의 일생을 한마디로 잘 압축해 내었다(獨摘此句看, 更盡李斯一生)”고 평하였고, 嚴評本에는 “감정을 서술하며 지극한 슬픔을 담았지만, 시어가 매우 거칠고 평이하다(述情亦悲至, 但語尚多粗淺)”라는 명대 사람의 평어가 있다.

2.3 友人會宿 벗과 모여 밤을 보내다

滌蕩千古愁,¹⁷⁾ 천고의 시름을 씻으려거든
 留連百壺飲.¹⁸⁾ 술 백 병은 마셔야 하리.
 良宵宜清談,¹⁹⁾ 경치 좋은 밤은 청담과 어울리고
 皓月未能寢. 휘영청 밝은 달에 잠 못 이루네.
 醉來臥空山, 취하여 텅 빈 산에 누우니
 天地即衾枕.²⁰⁾ 하늘과 땅이 곧 이불과 베개로세.

상석

천고의 오랜 시름을 깨끗이 씻어 버리려 술을 백여 병이나 마시고 있다. 아름다운 밤은 명리를 떠난 청담과 잘 어울리는데, 보름달까지 두둥실 떠 있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오가는 사람도 없는 깊고 고요한 산속에 술에 취해 누워 있으려니 하늘이 이불이 되고 땅이 바로 베개가 된다.

교기

제목의 宿은 飲으로 된 판본도 있고, 제3구의 宜에 ‘一作且’라고 주를 한 판본도 있다. 제4구의 月に ‘一作然’이라고 주를 하거나, 未가 誰로 된 판본도 있다. 《문원영화》에서는 제3구의 宵는 夜로, 談은 話로, 제4구의 皓月은 浩然으로, 제5구의 空은 ‘一作靑’이라 주하였다.

17) 滌蕩: 깨끗이 없애다.

18) 留連: 집착하여 미련을 가지다. 미련을 두어 차마 떠나지 못하다. 포조의 <代鳴雁行> 시에 “미련 남아 배회하며 차마 떠나지 못하네(留連徘徊不忍散)”라는 구절이 있다.

19) 良宵: 좋은 밤. ○ 宜: 어울리다. 부합하다. 적합하다. ○ 清談:清雅한 담론. 즉 명리를 떠난 담론. 한대 劉楨의 <오관중랑장에게 바친다(贈五官中郎將)> 시의 제2수에 “청아한 담론을 주야로 펼치니, 국가를 위한 근심과 고생을 쉽 없이 말하려는 마음이네(清談同日夕, 情吟敘憂勤)”라는 구절이 있다.

20) 衾枕: 이불과 베개. 소사운은 “이 시는 이백이 대체로 유명 <주덕송> 시의 ‘하늘을 장막 삼고, 땅을 자리삼아 엎매임 없이 마음 가는 대로 하네’의 뜻을 사용했다(此詩太白蓋用劉伶<酒德頌>幕天席地, 縱意所如之意)고 하였다.

해제

산 속에서 벗과 술 마시는 즐거움을 묘사하였다. 朱諫은 宣城(지금의 安徽省)에서 머물 때 지은 것으로 추정했으나, 창작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앞의 2구는 호탕하게 술을 마셔 천고의 시름을 씻고자 함을 그렸고, 다음 2구는 좋은 밤에 함께 청아한 담소를 펼치는데, 마침 밝은 달이 떠오르니 잠을 이룰 수 없음을 그렸다. 마지막 2구는 산 속에서 술에 취한 후 천지를 이불과 베개 삼아 잠드는 장면을 그렸다. 시인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천고의 시름을 씻고자 하는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朱諫은 《李詩選注》에서 “시의 정취가 가볍고 명쾌하다(詩意淺淡而明快)”고 평하였으며, 嚴評本에는 “기세가 또한 호탕하다(氣亦豪蕩)”는 명대 사람의 평어가 있다.

2.4 山中與幽人對酌²¹⁾ 산중에서 은자와 마주 앉아 술 마시며

兩人對酌山花開,	두 사람 마주 앉아 술 마실 적 산꽃 피어 있어
一盃一盃復一盃.	한 잔 한 잔 또 한 잔.
我醉欲眠卿且去, ²²⁾	난 취해 잠들 듯하니 그대는 일단 돌아가고
明朝有意抱琴來. ²³⁾	내일 아침 생각나거든 거문고 안고 다시 오시게.

상석

나와 은자 둘이 마주 보며 술을 마시는데, 산꽃이 피어 있는 걸 보고 의기투

21) 幽人: 은자.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22) 我醉欲眠卿且去: 《송서·도잠전》에 “귀친을 막론하고 그를 찾는 자가 있는 경우에 술이 있으면 언제나 술상을 차렸다. 도잠이 만약 먼저 취하면 바로 손님에게 ‘진 취해서 자러 하니, 그대는 가도 좋소이다’고 했는데, 그의 진솔함이 이와 같았다(貴賤造之者, 有酒輒設. 潛若先醉, 便語客, ‘我醉欲眠, 卿可去.’ 其真率如此)”고 했다. ○ 且: 잠시. ○ 卿: 남자에 대한 존칭.

23) 琴: 거문고. 옛날 은자들이 좋아하던 악기.

합하여 주거나 받거나 하며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마시고 계속하여 술을 마신다.

난 이전 술에 취해 자려고 하니 은자 그대는 일단 돌아갔다가 내일 아침에도 나하고 술을 마시고 싶거든 거문고를 안고 다시 이곳으로 오시오.

해제

꽃피는 봄날 은자와 더불어 술을 마시며 그 취흥을 묘사한 시이다. 安旗는 開元 21년(733)에 지은 것으로 추정했으나, 정확한 창작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제1구에서는 시인이 은자와 술을 마시는 장소와 주변의 모습을 묘사하고, 제2구에서는 '일배'를 세 번 연속 사용하여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여 술을 계속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제3구와 4구에서는 시인의 취한 모습을 도연명의 전고를 이용하여 진솔하게 보여주었다. 郁賢皓는 “抱琴은 거문고 연주를 좋아하는 이백의 성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은자 역시 거문고를 연주 할 줄 아는 고아한 사람임을 보여주어, 내일은 거문고를 연주하면서 술을 마시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는 중복을 기피하는 절구 형식에도 불구하고, '일배'를 세 번이나 반복 사용하여 생동적인 느낌과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歌行體의 풍격을 띄고 있다.

朱諫은 “이 시는 평이하고 명확하여, 그 맛이 도연명과 비슷하다. 시어는 가볍고 부드러워 인정에 부합한다. 그래서 후인들이 외우기를 좋아하며 싫증내지 않는다(按此詩清淺明白, 其趣味與淵明相似, 詩辭輕順而近情, 故後人好誦之而不厭也)”고 하였다. 嚴評本에서는 “도연명은 이런 취향이 가장 뛰어난데, 거문고를 안고라는 말을 덧붙이니 더욱 맛갈스럽다(淵明此趣元佳, 增出抱琴尤助味)”라는 명대 사람의 평어가 있다. 명대 譚元春은 《詩歸》에서 “이는 은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는 시로, 만약 속인이라면 술자리를 끝까지 하기도 어려운데 어찌 내일 다시 올 수 있겠는가?(是與幽人對酌詩, 若俗人則終筵且不堪, 何可明日再來)”라고 하고, 이어서 “有意” 두 글자는 감히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有意二字, 有不敢必之意)”고 하며, 이백의 자유로움을 높이 평

가했다.

2.5 春日醉起言志 봄날 취했다 일어나 뜻을 적다

處世若大夢,²⁴⁾ 세상살이 큰 꿈과 같으니
 胡爲勞其生.²⁵⁾ 무엇 때문에 생을 고달프게 하는가?
 所以終日醉, 그런 까닭에 종일토록 취해
 頽然臥前楹.²⁶⁾ 쓰러져 대청에 누웠네.
 覺來眊庭前,²⁷⁾ 깨어나 뜰 앞을 힐끗 보니
 一鳥花間鳴. 새 한 마리 꽃 사이에서 지저귀네.
 借問此何時,²⁸⁾ 묻노니 지금이 어느 때인가?
 春風語流鶯. 봄바람 속에 피꼬리가 속삭이네.
 感之欲歎息, 이에 슬퍼져 탄식이 나오니
 對酒還自傾. 술을 마주하고 다시 홀로 기울이네.
 浩歌待明月,²⁹⁾ 밝은 달 기다리며 목청껏 노래하다

24) 大夢: 《莊子·齊物論》에 “이에 큰 깨어남이 있는 뒤에야 이것이 큰 꿈임을 알게 되었다(此有大覺, 而後知此其大夢也)”라고 하였다.

25) 勞其生: 《莊子·大宗師》에 “무릇 대지란 나에게 형체를 부여하였고, 살아가는 것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늙어가는 것으로 나를 편안하게 하며, 죽음으로 나를 쉬게 한다(夫大塊載我以形, 勞我以生, 佚我以老, 息我以死)”고 하였다. 陶淵明의 <飲酒> 제3수에는 “나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어찌 한 번의 삶에 있지 않겠는가?(所以貴我身, 豈不在一生)”라고 하였다.

26) 頽然: 《宋書·顏延之傳》에 “술을 마시면 언제나 쓰러져 만족스러워 하였다(得酒, 必頽然自得)”라고 하였다. ○ 前楹: 安旌는 “대청의 앞쪽 기둥을 뜻하나, 여기서는 대청을 가리킨다(廳堂之前柱, 此代指前屋)”고 주석하였다.

27) 覺: 술이 깨다. ○ 眊庭前: 陶淵明의 <歸去來兮辭>에 “술병과 술잔을 끌어다 자작하며 뜰 앞 나뭇가지 힐끗 보며 얼굴을 펴네(引壺觴以自酌, 眊庭柯以怡顏)”라는 구절이 있다.

28) 借問此何時, 春風語流鶯: 張協의 <雜詩>에 “묻노니 지금은 어느 때인가? 나비가 남쪽 뜰을 날아가네(借問此何時? 胡蝶飛南園)”라는 구절이 있다.

29) 浩歌: 王琦는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大歌也)”이라고 하였다. 목청껏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이다. 屈原의 <九歌·少司命>에 “바람결에 황홀하여 큰 소리로 노래하네(臨風恍兮浩歌)”라 하였다.

曲盡已忘情.³⁰⁾ 곡이 끝나니 이미 모든 감정 잊었네.

상석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한바탕 긴 꿈을 꾸는 것과 같다. 인생이 꿈과 같은 것이라면, 매일 매일 애쓰며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자 허망한 생각에 술을 찾아 종일 인사불성이 되어 취한 채로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그러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잠이 깨었는데 뜰 앞을 힐끔 보니 새 한 마리가 꽃 사이에서 지저귀고 있었다. 문득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도 대답해주는 이 없고, 그저 봄바람 속에 피꼬리 울음만 화답하듯 들려왔다. 이렇게 달콤한 봄이 찾아온 줄도 모르고 속절없이 취해있었던 말인가? 울컥하여 탄식이 절로 나왔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술잔을 들어 다시 마시기 시작한다. 기분이 거나해져 밝은 달을 기다리며 호탕하게 한바탕 노래를 불러본다. 그렇게 나의 노래가 끝날 때쯤엔 희노애락을 모두 잊었다.

교기

제5구의 眇은 대부분의 판본에 盼으로 되어 있다.

해제

봄날과 술에 취함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만으로 이 시는 독자를 끌어당긴다. 구체적 사건이 등장하지 않는 이 시의 창작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安旗는 開元 21년(733) 관직생활 이전에 지은 것으로 간주했고, 혹자는 天寶 원년(742) 翰林供奉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했으나, 李林甫와 高力士 등의 배척

30) 忘情: 희노애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것을 망각한 듯 담담하다. <世說新語·傷逝>에 따르면 王戎은 자식이 죽어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없었다. 어떤 이가 그를 위로했는데 왕옹이 말하기를 “성인은 감정을 잊었고 가장 아래 단계의 사람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감정에 휩싸이는 사람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다(聖人忘情, 最下不及情. 情之所鍾, 正在我輩)”라고 하였다.

을 받고 고뇌 속에 술로 시름을 달래던 시기에 지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혹자는 장안을 떠나 天寶 4년(745) 東魯(지금의 산둥성 일대)에 거주할 때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창작시기는 알 수 없다.

한편 시의 境界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가 있다. 명대 朱諫(1455-1541)은 《李詩辨疑》에서 “이른바 큰 꿈으로 탄식하는 사람이 어찌 자질구레한 것을 따질 겨를이 있겠는가? 천하의 온갖 부귀공명을 다 가져다 준다 해도 모두 나의 근심거리가 되지 못한다(所謂大夢而歎息者, 何足計乎? 舉天下之富貴功名, 皆不能係於吾之念慮也)”라고 시의 경계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명말 唐汝詢은 《唐詩解》에서 “이는 염세적으로 술에 도피한 것이다(此厭世而逃於酒也.)”라고 하여, 술로 삶의 고통을 잊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현대 문학평론가인 何其芳은 《시가 감상》에서 “당신이 이 시의 첫 구를 보면 인생이 꿈같다 하고 시의 처음과 끝에서 모두 술을 마시자고 고취하고 있으니 소극적이고 퇴폐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사람의 주목을 끄는 것은 봄날의 빛깔이고 생명의 약동이다. 이는 봄날의 경치와 생명 활동에 대한 작자의 찬미인 것이다”³¹⁾라고 하여 기존의 견해를 종합한 감상을 제시했으니 타당하다.

이 시와 도연명 시의 유사성에 대한 평가도 의견이 분분하다. 송대 嚴羽는 “도연명과 흡사하나, 도리어 도연명을 배웠다고는 말할 수 없다(似陶, 却不得言學陶)”라고 하고, ‘새 한 마리 꽃 사이에서 울고 있다’라는 구절은 “그윽함의 극치이며 그 오묘함은 ‘幽’자를 들어 말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에 비로소 후인들이 줄렬하게 드러내었음을 알겠다(幽極, 妙在不判出幽字, 始覺後人拙露)”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원대 蕭士贇은 “이백의 이 시는 도연명을 모방하여 지은 것이다(太白此詩, 擬陶之作也)”고 하여 도연명과 유사한 분위기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朱諫은 “이 시에 대해 해설자들은 도연명을 모방하여 지었다고 생각하나, 도연명의 시가 맑고 평이한 것과 달리 이백의 이 작품은 감정이 상당히 유사한 것 같지만 시어는 도연명을 뛰어넘었다(按此詩說者以爲

31) 詹鍇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6권, 何其芳, 《詩歌欣賞》, p.3318.

擬陶之作. 陶詩自是沖淡平易, 白此作情思頗相似, 而詞藻過之”고 높이 평가했다. 시의 전반에 인생의 고뇌를 잊고자 술을 마시는 우수가 엿보이나, 문득 눈앞의 생동하는 봄을 놓칠 수 없다는 깨달음과 현재의 아름다움을 즐기고자 하는 초연함도 보인다.

2.6 獨坐敬亭山(宣城)³²⁾ 경정산에 홀로 앉아(선성에서)

衆鳥高飛盡, 못 새들 높이 날다 사라지고
孤雲獨去閑.³³⁾ 외로운 구름 홀로 유유히 떠나가네.
相看兩不厭, 서로 바라보아도 둘 다 싫증나지 않는 것은
只有敬亭山. 오로지 경정산 뿐이로구나.

상석

못 새들 높이 날다 자취도 없이 멀리 사라져 버리고 한 조각 외로운 구름도 유유히 흘러 저 멀리 홀로 떠나간다. 새와 구름 모두 가버린 지금 나와 함께 남아 마주보아도 싫증나지 않는 것은 오직 경정산뿐이다.

교기

全唐詩本을 비롯한 대부분의 판본에는 제목 아래에 ‘宣城’ 2자의 주가 없다. 제1구의 高가 忽로 된 판본도 있고, 제4구의 有는 《문원영화》에 在로 되어 있다.

32) 敬亭山: 지금의 안후이성 宣城市 북쪽에 위치함. 《輿地紀勝》 권19 寧國府에는 “《원화군현지》에 이르길 선성현에서 북쪽으로 10리 떨어져 있으며, 산에는 만송정, 호규천이 있다(《元和郡縣志》云: 在宣城縣北十里, 山有萬松亭、虎窺泉)”고 기록되어 있다.

33) 孤雲: 외로운 구름. 도연명의 <詠貧士詩>에 “외로운 구름 홀로 의지할 곳 없네(孤雲獨無依)”가 있다.

해제

경정산에 대한 이백의 심정을 그린 시다. 경정산은 이백이 좋아했던 육조 때의 시인 謝朓(464~499)가 선성태수로 있을 때 자주 올라갔던 곳이다. 이백도 여러 차례 선성을 방문하여 경정산에 올랐다.³⁴⁾ 창작시기에 대해서 詹鏞은 天寶 12년(753)으로 보았고, 郁賢皓도 天寶 12년이나 天寶 13년에 지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정산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며 두 주부를 회고하다(登敬亭山南望懷古贈竇主簿)>도 비슷한 시기에 지은 것이다.

이 시의 전반부인 제1구와 2구는 새도 구름도 모두 사라져 버린 實景 속에 아무도 없는 적막하고 고독한 심정을 담았다. ‘盡’ ‘閑’ 두 글자에 이백의 외로운 심경이 잘 드러나 있다. 후반부인 제3구와 4구는 의인화 수법을 이용하여 이백의 경정산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었다. 오직 홀로 남겨진 이백 자신과 경정산이 서로 바라보는 정경 속에서 이백과 경정산이 하나가 되었다. ‘相’, ‘兩’, ‘只有’라는 표현 속에는 새들이나 조각구름이 멀리 떠나는 것과는 달리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경정산이 이백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됨을 보여준다.

청대 王堯衢는 《唐詩合解》에서 “첫 구 — 이것은 ‘독’자를 위해 묘사한 것이다. 못 새는 세상에서 명리를 추구하는 무리를 비유한 것으로 지금은 모두 다 뜻을 얻어 떠나버렸다. 다음 구 — 의 ‘독’자는 제1구의 ‘진’자와 상응하며, 시 제목의 ‘독’자는 아니다. ‘고운’은 세상에 은거하는 무리를 비유한 것으로, 세상을 잊었다지만 오히려 세상과 왕래하는 흔적이 있다. 마지막 두 구 — 이 두 구가 바로 ‘독’자인데, 새가 날아가고 구름이 떠나가니 눈앞에는 아예 다른 사물이 없어 오로지 경정산만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경정산도 나를 보고 있는 듯한데, 둘이 서로 싫어함이 없으며 여유롭고 평안하여 마음이 환해진다. 경정산 외에 만나 이야기 나눌만한 것이 또 어디 있으리오! ‘홀로 앉아 있음’의 신운을 깊이 얻었다”고 평가했다.³⁵⁾ 경정산 산마루 주변을 날아다니던 새들도 하

34) 簡錦松, 唐宸은 <李白詩“相看兩不厭, 只有敬亭山”現地研究>에서 이 시는 제목으로 보면, 시인이 홀로 경정산에 앉아 지은 것으로 보이나, 현지답사 및 연구를 통해 이 시는 이백이 이른 새벽 수로를 통해 경정산에 갔으며, 旬溪(경정산과 지리적으로 밀접한 하천)의 배안에서 장시간 경정산을 바라보며 지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늘에 떠돌던 구름도 어느 사이엔가 사라져 버리고 텅 빈 저녁 하늘 아래 오로지 경정산과 이백 자신뿐인 정경에 대한 해설은 이백의 고독과 외로움의 깊이를 이해하도록 인도한다.

3. 맺는 말

이백은 일생동안 3년간의 궁정문인의 생활을 했을 뿐 청년기에는 각지의 산천을 유람하며 유랑생활을 했고, 궁정에서 추방된 이후에도 긴 방랑을 생활했다. 따라서 공적을 세우고 은일하고자 했던 그의 꿈은 이루지 못했다.

일생 동안 유랑생활을 했던 이백의 행적은 한적시에도 잘 드러난다. 長江 주변과 黃河 일대의 명산대천에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시의 제목에는 長安·洛陽·蜀中·楚漢·魯中·吳中 등 다양한 지명과 元丹丘·汪倫·盧子順·山僧·隱者·尊師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한적시에도 그의 자유분방하고 낭만적이며 즉흥적이고 화려한 시구에 주관적 정감을 표현하는 이백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동시에 고독과 음주와 초월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먼저 이백은 한적시에 자기응시와 고독의 승화를 나타내었다. 이백의 '고독(獨)'은 시의 제목에도 자주 보인다. 그것은 바로 친한 이가 없어 홀로 술을 마시고, 오직 자신만이 의지할 바가 없는(<春日獨酌>) 상태의 고독이다. 그러나 이백은 달과 그림자를 벗으로 교류하고(<月下獨酌>), 늘 제자리에 있는 경정산이 자신을 알아주는 유일하고 참다운 친구라고 생각하며 자연과 혼연히 융화한다.(<獨坐敬亭山>) 그리고 고독을 쓸쓸하게 여기기 않고, 고독 가운데 고요와 자적하는 여유를 즐거움으로 승화하였다.

35) 王堯衢, 《唐詩合解》: “首句一此爲‘獨’字寫照。衆鳥喻世間名利之輩, 今皆得意而盡去。次句一此‘獨’字與上‘盡’字應, 非題中‘獨’字也。‘孤雲’喻世間高隱一流, 雖與世相忘, 尙有去來之跡。末二句一此二句才是‘獨’字, 鳥飛雲去, 眼前并無別物, 惟看著敬亭山: 而敬亭山亦似看著我, 兩相無厭, 悠然清淨, 心目開朗, 於敬亭山之外, 尙安有堪爲晤對哉! 深得獨坐之神”

다음으로 한적시에서도 이백은 술과 술을 통한 초월 정신을 노래했다. 중국의 시인들 중에 이백이 처음으로 술을 노래한 것은 아니고, 이백은 적지 않은 작품에서 술에 대한 많은 예찬을 했다.³⁶⁾ 한적시의 제목에도 이백은 술과 연관된 글자를 자주 사용했다.³⁷⁾ 酒仙답게 이백은 석 잔 술에 큰 도에 이르고, 한 말 술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취중의 흥취를 강조했다.((〈月下獨酌〉其二) 동시에 이백은 술로 마음 깊은 곳의 고뇌와 시름을 풀어내고(〈友人會宿〉), 목청껏 노래하다 모든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심리적 자유를 누렸다.(〈春日醉起言志〉) 한적시에서도 이백은 술에 취한 것 같지만 완전히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 고뇌를 씻어내고 그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사상과 진실한 감정을 풀어내는 독특한 풍격을 나타내었다.

이백은 자신의 재능을 국가의 창성을 위해 바치는 대업을 완성하고, 范蠡나 張良처럼 자연에 은거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꿈과 달랐고, 그의 정치적 포부는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백은 한적시를 통해 고통을 고요와 한적의 즐거움으로 승화시키고, 술로 천고의 시름을 씻어내는 동시에 세속 사람들과 달리 초월의 경지에 이른 자신을 시로 표현한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었다.

36) 중국의 고대 시인들 중에 曹植·阮籍·嵇康·陶淵明 등은 飲酒詩와 詠酒詩로 이름이 알려졌다. 일찍이 두보는 〈中八仙歌〉에서 “이백은 술 한 말에 시 백 편이건만, 장안 저갓거리 술집에서 취해 잠이 드네. 천자가 불러도 배에 오르지 못하고, 스스로 말하길 술 취한 신선이라 하네.(李白一斗詩百篇, 長安市上酒家眠. 天子呼來不上船, 自稱臣是酒中仙)”라고 했다.

37) 이백의 한적시의 詩題 가운데 술과 연관된 글자가 14편에 보인다. 이를테면, 제목 가운데 ‘酒’자가 포함된 작품으로는 〈待酒不至〉, 〈對酒醉題屈突明府廳〉, 〈對酒〉, 〈嘲王歷陽不肯飲酒(歷陽)〉 등이 있고, 제목에 ‘酌’자가 보이는 작품은 〈獨酌〉, 〈春日獨酌〉, 〈月下獨酌四首〉, 〈山中與幽人對酌〉, 〈與史郎中飲聽黃鶴樓上吹笛(江夏)〉이 있으며, 제목에 ‘醉’자가 보이는 작품은 〈魯中都東樓醉起作〉, 〈對酒醉題屈突明府廳〉, 〈冬夜醉宿龍門覺起言志〉, 〈春日醉起言志〉, 〈醉題王漢陽廳〉 등이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이백 시집 중에 술과 관련된 酒·醉·酌·杯·樽 등 다양한 글자들이 총 322곳에 나온다고 한다.

< 參考文獻 >

- 詹鍇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全8冊),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 郁賢皓 校注, 《李太白全集校注》(全8冊), 南京: 鳳凰出版社, 2015.
- 王琦 輯注, 《李太白詩集注》, 北京: 中華書局, 1977.
- 瞿蛻園·朱金城, 《李白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 宋敏求·曾鞏 等編, 《李太白文集》, 成都: 巴蜀書社, 1985.
-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成都: 巴蜀書社, 1990.
- 이백 지음, 이영주·임도현·신하운 역주, 《이태백시집》(전8권), 서울: 학고방, 2015.
- 이백 지음, 임도현 역주, 《이백시선》, 서울: 지식음만드는지식, 2013.
- 이백시문연구회, 《이백시전집》(고풍), 서울: 지식음만드는지식, 2018.
- 다카시마 도시오 지음, 이원규 옮김, 《이백, 두보를 만나다》, 서울: 심산문화, 2003.
- 시바 로꾸오 지음, 윤수영 옮김, 《중국문학속의 고독감》, 서울: 동문선, 1992.
- 許慎撰,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臺北: 天工書局, 1987.
- 李福軍, <酒与李白詩歌藝術>, 《云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7. 10.
- 江鳳賢, <論李白的傲氣及其詩歌創作>, 《南昌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993. 12.
- 安相, <論李白詩歌中月意象的精神內涵>, 《晉城職業技術學院學報》, 2016. 03.
- 陳明彬 資建民, <李白的孤獨文化心理探微>, 《綿陽師範學院學報》, 2010. 07.
- 孟修祥, <論李白的飲酒詩>, 《中國文學研究》, 1989. 12.
- 簡錦松, 唐宸, <李白詩“相看兩不厭,只有敬亭山”現地研究>, 《陝西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8. 12.
- 周尚義, <“閑”与“适”的文化解讀——以對白居易閑适詩的考察為基礎>, 《湘南學院學報》, 2006. 12.
- 楊再鋒, <白居易閑适詩淵源探析>, 《鹽城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11. 12.
- 文艷蓉, <白居易閑适詩原論>, 《徐州工程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12. 07.

< Abstract >

A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Li Bai's 'Xianshi Poem
(Leisure Poems, 閑適詩)

Kim, Junghee

During his lifetime, Li Bai lived as a court literary man for just three years. In fact, most of his youth and even his time after the court life were nearly full of wandering lives through mountains and rivers of various places. Therefore, his dream for making achievements and advancing his career in the court world wasn't able to be fulfilled. In other words, his plan couldn't be carried out, which was to retire to hermitage in nature after a glorious success in the political world.

Under this circumstances, Li Bai composed lots of 'Xianshi poems(Leisure poems, 閑適詩)' representing such artistic qualities as sublimate loneliness into serenity and furthermore delightful tranquility, wash away troubles and anguish with alcohol and spread his free thoughts and real feelings without restriction. His poems can be interpreted and construed as the masterpieces painting the poet himself who reached the highest state of mind of transcendentalism beyond secularity.

Key words: Li Bai, 'Xianshi poem(閑適詩)', loneliness, drinking, transcendence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07. 31	2020. 08. 11 -08. 28	2020. 08. 14	2020. 09. 01	2020. 09. 30